

숨과 심

삼애교회 목회서신

2020. 3. 15. 제38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편집 발행인 김동환
031-975-1885, 1884(fax)
<http://samae.yonsei.ac.kr>
love3@yonsei.ac.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하나님처럼 되어서?

창세기 2:15-17, 3:1-7; 로마서 5:12-19; 마태복음서 4:1-11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언젠가 되리라 예상을 해왔으나 막상 실제로 그 일 앞에 닥쳤을 때 전혀 예상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나름대로 예상하면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의 기로의 주요 사안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미래 예측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창 2:17). 다른 하나는 뱀 곧 사탄으로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창 3:3). 아담과 하와는 모르는 미래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에 그 한치 앞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맞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뱀입니까?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의외로 꽤 헛갈리시죠? 따먹고 바로 죽지 않았으니 뱀이 맞았나요? 그럼 하나님이 틀리셨나요? 다행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고 뱀이 틀렸습니다. 바로 죽진 않았기에 뱀이 맞은 것 같았으나 이 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창 3:19). 결국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은 틀린 것이지요. 반면 따먹고 바로 죽지는 않았으나 결국 죽게 되었으니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인간도 사탄도 은사를 받은 자도 한치 앞에 일어날 우리의 모든 복잡한 인간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대로 신학에서는 '섭리'(providence)라고 합니다.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아십니

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이 고백이 신앙의 기초요, 신앙인의 기본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유혹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책 '인간의 본성과 운명'(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에서 교만을 원죄의 기원으로 보면서, 교만이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창 3:5). 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하나님만이 지니신 선악 분별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요, 인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자, 인간의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지니신 선악 분별 능력을 인간이 훔쳐서 갖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될 줄, 창조자가 될 줄 착각한 것입니다. 이 착각 현상이 바로 교만입니다. 원죄의 기원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의 순간, 교만의 순간, 원죄의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아는 착각의 순간에 최초의 인간 아담은 넘어졌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받으신 시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 가지 악마의 유혹, 곧 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여 물리칠 능력이 예수께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만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신 예수께서는 사역의 마지막 발걸음 또한 그러한 순종으로, 겸손으로 마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 철저한 겸손, 그 순종과 겸손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시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하여 내 지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닦친 문제

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경각하고 기억합니다. 우선 그렇게 한심해보인 아담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경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나 다행히 나와는 다른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순종과 겸손으로 악마의 유혹을 이기셨는지를, 그분이 그 순종과 겸손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이유를 기억합니다. 이러한 경각과 기억을 통해 한치 앞도 모르는 우매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미래가 확실히 약속되었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믿고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동환(2020. 3. 1.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

인으로서 천하를 통일함

맹자견양혜왕孟子見梁惠王하신대 왕왈수불원천리이래王曰不遠千里而來하시니 역장유이리오국호亦將有以利吾國呼잇가?

“맹자께서 양나라 혜왕을 뵈었는데 왕이 말씀하시기를,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하지 하니하고 오셨으니 이 역시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2500년 전의 중국은 전국戰國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한위조연진제초韓魏趙燕秦濟楚의 7국으로 나뉘어서 쟁패하고 있었다.

각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총력을 경주하였다.

제자백가諸子百家라 하여 온갖 종류의 사상이 범람하였고 군주들은 자국이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현능賢能한 인사를 초청하였다.

유세객遊說客들은 수레 수 십대와 제자를 비롯하여 따르는 사람 수 백명을 이끌고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주유천하周遊天下하였으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씩크탱크에 해당할 것이다.

맹자는 그 보다 150년 전 사람인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제자한테서 배웠다고 하는데 공자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대에 유학儒學을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혜왕은 이름을 양 췌이라고 하는 위魏나라 제후로서 대량大梁에 도읍지를 정하고 왕의 칭호를 참칭한 인물이다.

전국시대에는 원래 주周나라의 제후들이었던 군주들이 천자에게만 쓰는 왕 王이라는 칭호를 경쟁적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인용한 글은 ‘맹자’를 대표하는 유명한 구절로서 책을 펼치면 맨 앞의 ‘양혜왕편’의 제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왕이 먼 길을 온 맹자에게 하는 수인사로서,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는, 즉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왕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대답한다.

맹자대왈孟子對曰 왕하필왈리王何必曰利잇고 역유인의이亦有仁義已니이다. 왕왈王曰 하이리오국何以利吾國하면 대부왈大夫曰 하이리오가何以利吾家며 사서인왈士庶人曰 하이리오신何以利吾身하며 상하고정리上下交征利에 이국위의而國危矣니이다.

“맹자가 말씀하기를,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뒷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만을 위해 싸우게 되고 결국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먹고 먹히는 혼잡한 전국戰國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혜왕은 자신을 낮추고 선물을 넉넉히 준비해서 지혜로운 이를 초빙하여 국정에 대한 자문을 청한다.

빠른 시간 안에 나라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리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원했으나 맹자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즉각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오직 인의가 있을 뿐(亦有仁義已)’이었다.

전국시대 최강이었던 진秦나라의 영정瀛政은 법가사상을 가진 이사李斯의 보필을 받아 6국을 차례로 병합하기 시작하는데 최악체였던 한韓을 병합(BC230)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차례대로 조趙, 위衛, 초楚, 연燕을 병탄하고 BC221년 제齊에 무혈 입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통일 사업을 시작하지 9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천하를 통일하였고, 중국 대륙은 춘추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자신은 삼황오제三皇五帝의 덕을 갖추었다고 해서 첫 번째 황제(始皇帝)로 등극한다.

진나라는 이익의 극치를 추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했지만 인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부의 모순으로 15년 밖에 지속하지 못하고 바톤을 한漢나라에게 넘겨준다.

한나라는 공자와 맹자의 유학을 받아들여서 420년을 존속한 왕조가 되어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중국인을 한족漢族이라고 하는 것도 인의에 기초한 정치를 했다는 한시대漢時代에 기인한다.

- 허철령 교수 -